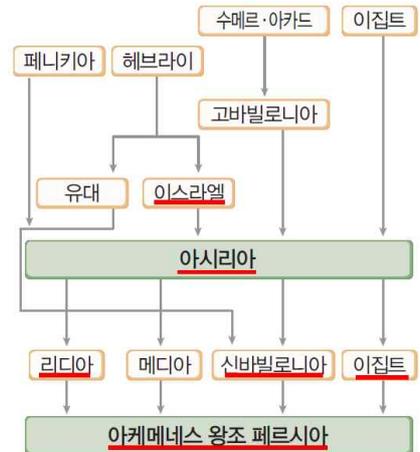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서아시아인의 통일과 여러 제국]

01. 아시리아(기원전 671 ~ 기원전 609)

- 아슈르바니팔 왕, 수도 니네베(Nineveh)
- 최초로 서아시아 세계 통일
- 중앙 집권 통치 실시
: 군용 도로와 역전제(驛傳制) 정비
: 전국을 주(州)로 나누고 총독 파견
- 니네베 왕립 도서관 건립
- 지구라트 건설
- 강압적인 통치 방식
: 신바빌로니아와 메디아 연합군이 니네베를 점령(기원전 612)한 이후 멸망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변천>

02.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기원전 559 ~ 기원전 330)

- 수도 수사(Susa)
- 키루스 2세(㉔, 재위 기원전 559 ~ 기원전 529)
: 리디아의 수도인 사르디스 함락, 신바빌로니아 정복 등 서아시아 재통일
: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한 포용 정책 실시(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

나는 키루스이다. 세계 제국의 왕이자 위대한 왕이며 …… 신(아후라 마즈다)의 뜻으로 공표하니, 내가 살아 있는 한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이다. ……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차별해서도 안 되며 ……
- 키루스의 칙령(기원전 539)

- 캄비세스 2세(㉕, 재위 기원전 529 ~ 기원전 522)
: 이집트 정복
- 다리우스 1세(㉖, 재위 기원전 522 ~ 기원전 486)
: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
: 인더스 강 유역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영토 확보
: 반란 평정, 정복 전쟁을 통해 그리스 식민지 정복
: 페르세폴리스 건설(페르시아의 도시, 기원전 518 ~)
: 20여 개 속주에 총독(사트라프) 파견
: 감찰 관리(왕의 눈·왕의 귀)를 파견해 총독 감시
: 왕의 길(수사 ~ 사르디스) 건설, 역참(驛站) 정비
: 화폐와 도량형 정비
: 운하 최초 건설(지중해 ~ 홍해)
: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2 ~)
↳ 마라톤 전투 패배(기원전 490)
•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와 신봉
• 속주 총독들의 반란, 지배층의 분열
•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멸망(이소스 전투)



<키루스 원통(뺨기 문자)>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발전

[★서아시아의 통일과 여러 제국]

03. 박트리아(= 대하국, 기원전 246 ~ 기원전 138)

- 디오도투스의 건국, 중앙아시아의 박트리아, 소그디아나(Sogdiana, 현 우즈베키스탄 지역) 지배
- 중앙아시아, 인도 북서부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 전파

04. 파르티아(= 안식국, 기원전 247 ~ 기원후 226)

-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제국의 동방 영토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의 쇠퇴**
↳ **이란 계통의 유목민, 아르사케스 1세의 건국(수도 크테시폰)**, 정복지 주민들을 관대하게 통치
- **오로데스 2세**(재위 기원전 57 ~ 기원전 38), 로마 크라수스의 군대 격퇴(카레 전투, 기원전 53)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통 계승, 페르시아어와 문자를 사용
- **로마 ~ 인도 ~ 한(漢)을 연결하는 동서 무역로를 장악하여 중계 무역으로 번영**
- 로마 제국, 인도의 쿠산 왕조 등과의 경쟁으로 쇠약
↳ **사산 왕조 페르시아(아르다시르 1세)에 멸망**

05. 사산 왕조 페르시아(224 ~ 651)

- **수도 크테시폰(Ctesiphon)**
-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내건 이란계 민족이 건국
- **메소포타미아 ~ 인더스 강[Vs 굽타 왕조]에 이르는 대제국 건설**

: 샤푸르 1세, 로마와 경쟁하며 영토 확장

: **쿠산 왕조 침략**

- 중앙 집권 체제 강화(지방에 총독 파견)

- 중계 무역으로 번영

: 동서 교역의 요충지를 차지한 지리적 이점

- 페르시아어, 아랍어, 쉐기 문자 사용

- **조로아스터교의 국교화**

: 경전 『젠드아베스타』 편찬

- **마니교 등장과 탄압**

: 조로아스터교, 그리스교, 불교 등 융합

: 현세 부정, 금욕주의와 정신주의적 성향

: **세속화가 진행되던 조로아스터교와 대립**

: 이단으로 탄압 →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전래**

- 페르시아, 인도, 그리스 문화 등을 융합한 국제적 성격의 문화

- 건축과 공예

: 다양한 건축 양식이 결합된 건축술 발달

: **금속 세공품과 유리 공예 발달**

: 로마, 인도, 한반도, 일본까지 전파

-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 왕실의 내분으로 쇠퇴

↳ **이슬람 세력(사라센)의 침입으로 멸망(651)**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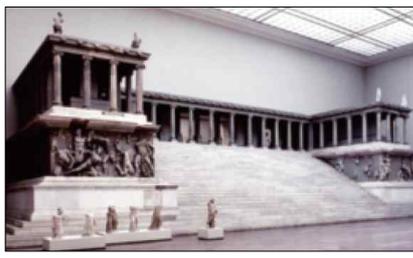
〈페르시아와 신라의 물병〉



▣ 유럽 각국에 전시된 서아시아 고대 유물



아시리아의 라마스상(대영 박물관)



페르가몬 출토 유물(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



수사 궁전 출토 타일(루브르 박물관)

▣ 조로아스터교

-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다. 정성 들여 부지런히 땅에 씨 뿌리는 자가 수천 번 기도하여 얻은 것보다 더 풍성한 종교적 결실을 얻는다. - **조로아스터**
- 조로아스터는 자라투스트라의 그리스 식 발음인데, 20세경에 종교 생활에 입문하여 30세경에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의 계시를 받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였다고 한다. **불을 신성시하여 배화교(拜火敎)라고도 불렀으며 중국에는 현교(祆敎)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었다.**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는 구세주의 출현, 죽은 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대교와 크리스티교, 이슬람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 인도·유럽어족은 불을 신성시하여 신에게 제사드릴 때에는 불을 피워 재물을 바치는 습관이 있었다.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종교 역시 인도·유럽어족인 아리아인들의 불을 신성시하는 토속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전 『아베스타(Avesta)』에 의하면 세계 역사는 선·악 양신의 투쟁 과정이며, 인간은 선신인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a)를 믿음으로써 악신인 아리만(Ahriman)을 이 세상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선·악 양신의 싸움은 선신의 승리로 끝나며,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선신을 믿은 자는 천국에, 악신 편을 든 자는 지옥에 떨어지나 최종적으로는 선신에 의하여 모든 인간이 구원된다고 생각하였다.**

① 기원전 7세기경 예언자 조로아스터(Zoroaster)가 창시, ② 광명의 선신 아후라 마즈다와 암흑의 신 아리만과의 투쟁에서 선신이 승리한다는 **이원론적 종교**, ③ 신전과 신상을 만드는 대신 야외에 성화단(聖火壇)을 만들어 예배, ④ 세계 구원, **최후의 심판**, 사자(死者)의 부활, **구세주 출현** 등을 신봉

▣ 『아베스타(Avesta)』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으로 아베스타어로 쓰여 있으며, 기원후 3세기경에 결집되었다.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인 아후라 마즈다 또는 그의 제령(諸靈)이 예언자 조로아스터에게 계시한 것으로, 우주의 창조, 법, 전례, 조로아스터의 가르침 등이 기록되어 있다. ‘아베스타’란 페르시아어로 지식을 의미한다.

개념 Check

- ① ()는 기원전 7세기에 철제 무기와 기마병을 앞세워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하였다.
- ②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는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신앙, 다른 사람의 권리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칙령을 발표하였다.
- ③ ()는 전국을 20여 개의 속주로 나누어 총독을 보내고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 ④ ()는 페르시아 왕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번영하였지만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하였다.
- ⑤ ()는 224년 이란계 민족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하였다.

01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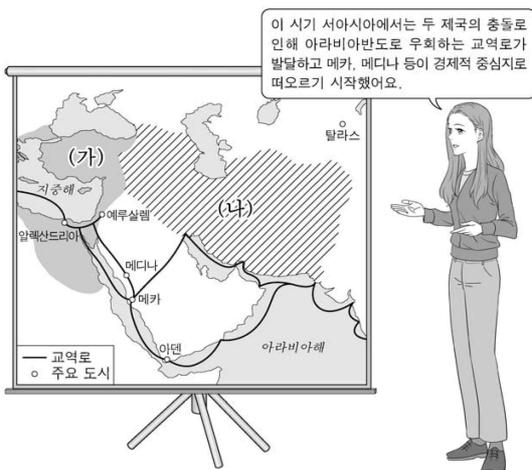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제국의 동방 영토를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점차 쇠퇴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사케르 1세가 (가)을(를) 세웠다. 이후 (가)은(는) 서쪽 방면으로는 셀레우코스 왕조, 동쪽 방면으로는 박트리아와 경쟁하였다. 그리고 오로데스 2세 치세에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와 권력을 분점하던 크라수스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한편 전성기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장악하였고, 로마 제국과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중계무역으로 번영하였다.

- ①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였다.
- ② 이란 계통의 민족에 의해 세워졌다.
- ③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 ④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 ⑤ 수도 니네베에 왕립 도서관을 건립하였다.

03

(가), (나)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 ① (가) - 파르티아를 정복하였다.
- ② (가) - 밀레트 제도를 운용하였다.
- ③ (나) - 바그다드를 수도로 삼았다.
- ④ (나) - 이스마일 1세에 의해 수립되었다.
- ⑤ (가), (나) -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였다.

02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9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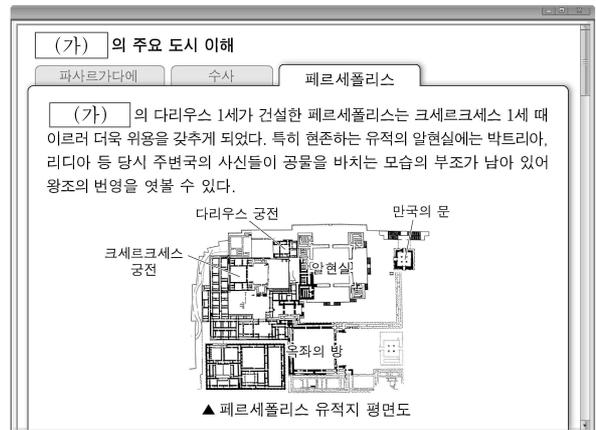
카르티르는 (가)의 샤푸르 1세를 계승한 호르미즈드 1세 때 조로아스터교 사제장의 지위에 올랐다. 바흐람 1세 때는 정치적인 힘을 앞세워 마니를 처형하였고, 마니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종교 탄압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난 반면, 조로아스터교는 (가)의 국교로 자리매김하였다.

- ①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다.
- ② 페르세폴리스를 수도로 건설하였다.
- ③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 ④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수립하였다.
- ⑤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 및 왕실 내분으로 쇠퇴하였다.

04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 ① 쿠산 왕조와 교역하였다.
- ② 밀레트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③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④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되었다.
- ⑤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이슬람교 성립 이전의 아라비아 사회]

01. 아라비아 반도의 생활

-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부족 단위의 유목과 농경에 종사

02. 6세기 후반 아라비아 사회

-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동서 교역의 중심지 차지
: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간의 대립 격화
- 이란과 시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교역로 차단
-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지나는 새로운 교역로 발달
: 메카·메디나 등의 도시 번성
- 다신교로 인한 종교적 갈등으로 부족 간 대립 심화
- 빈부 격차 심화



<6세기 후반 교역로의 변화>

[이슬람교의 성립과 교리]

01. 성립(610년경)

-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570 ~ 632)가 창시
: 알라(Allah)의 계시
: 다신교 부정(유일신 알라에 대한 절대복종)
: 모든 인간은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 → 민중의 지지

▣ 이슬람

아랍어로 **알라에게 순종함**을 의미한다. 신의 의지와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마음과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다.

알라는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성스러운 표지를 주고 성령으로 그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에게 내린 계시를 믿는다. 모세와 예수, 그 밖의 예언자들에게 내린 계시를 믿는다. **당신의 신은 하나이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02. 교리

- 6신(信)
: 신(알라), 천사(말라이카), 성서(쿠란), 사도(무함마드), 최후의 심판일(내세와 부활), 정명(定命, 숙명)
- 5행[五行, = 5주(五柱)]
: 샤하다(신앙 고백), 살라트(기도), 자카트(자선), 라마단(금식), 하지(순례)
- 『쿠란(Quran)』
: 경전인 동시에 경제·군사·법률의 내용을 포함하는 생활 지침서
- 혈연과 인종, 신분을 초월한 보편적 종교 사상
: 공동체 우선시,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지향
- 포교를 위한 전쟁(지하드) 신성시



<메카, 카바 신전>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이슬람 제국의 발전 과정]

03. 우마이야(Umaiya) 왕조(세습 칼리프 시대, 661 ~ 750)

- 시아 알리 피살 이후 우마이야 가문에서 배출된 제5대 칼리프 무아위야가 칼리프직을 아들에게 세습
: 카르발라의 참극(680) → 수니파, 시아파 분리

우마이야 가문에서 배출된 제5대 칼리프 무아위야가 제4대 칼리프 알리의 아들들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 칼리프직을 아들인 야지드에게 넘겨주자(680), 분노한 알리의 차남 후세인이 지지 세력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반란 세력은 우마이야 군대에게 카르발라(현 이라크)에서 잔인하게 몰살을 당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알리의 추종자들은 '시아파(시아는 분파라는 의미)'를 형성하였다.

- 다마스쿠스에 도읍
- 이슬람 제국의 영토적 전성기
: 동쪽으로 당(唐)과 접경
: 소아시아에서 비잔티움 제국과 접경
: 북서부 아프리카 점령(8세기 초)
: 이베리아 반도 진출(711)
: 중앙아시아, 북인도 진출(713)
: 투르·푸와티에 전투 패배(732)
- 아랍인 우월주의
: 아랍인을 우대하고 비(非)아랍인 차별
: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
- 바위의 돔 건립(예루살렘, 691)



04. 아바스 왕조(동 칼리프, 750 ~ 1258)

- 아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왕조에 불만을 가진 세력[비(非)아랍계 무슬림, 시아파]의 도움으로 건국
- 알 만수르(②, 재위 754 ~ 775)
: 바그다드[메디나트 알 살람(평화의 도시)]에 도읍
- 중앙 집권 체제 확립
: 관료제, 상비군, 군인 노예(맘루크)로 친위대 구성
- 탈라스 전투 승리(⇔ 당, 751)
: 동서 무역의 주도권 장악
: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교 확산
: 이슬람 세계에 제지술 전파
- 범(凡)이슬람 제국으로 발전
: 아랍인의 특권을 폐지하고 비(非)아랍인도 능력에 따라 등용
: 비(非)아랍인 이슬람교도에게 세제상의 차별 철폐
- 지혜의 집(= 바이트 알 히크마) 설립(바그다드, 832)
: 알 마문(⑦, 재위 813 ~ 833),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와 번역 기관



〈원형 도시 바그다드, 세계의 시장〉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이슬람 제국의 발전 과정]

04. 아바스 왕조(동 칼리프, 750 ~ 1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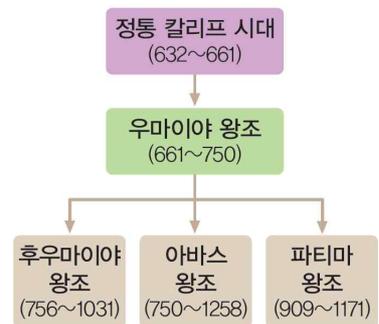
- 이슬람, 그리스, 이란, 인도 문화를 수용한 국제적 문화 발달
- 셀주크 튀르크의 바그다드 입성(1055)
: 술탄의 칭호 부여 → 셀주크 튀르크의 정치적 실권 획득
- 몽골 훌라구의 원정으로 멸망(1258)
: 훌라구 울루스(= 일 한국) 성립

▣ 술탄(Sultan)

칼리프의 동의를 받아 지배 지역의 정치와 군사적 실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05. 후(後) 우마이야 왕조(756 ~ 1031)

- 수도 코르도바
-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인 압둘 라만이 이베리아 반도에 건국
- 10세기 전반 칼리프 선언(서 칼리프)
- 이슬람, 비잔티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된 높은 수준의 문화 형성
: 코르도바 메스키타(대성당, 785년경)



〈이슬람 제국의 발전〉

06. 파티마 왕조(909 ~ 1171, 아이유브 왕조에 멸망)

- 시아파, 북아프리카에 건국
-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고 칼리프의 칭호 사용
- 카이로 천도(969)
- 이집트의 플랜테이션과 산업 발전



〈알 아즈하르 대학〉

- 유럽 및 인도와 광범위한 교역 연계망 구축
: 이집트 산물의 수출 무역 시작
- 이탈리아의 일부 도시 공화국들과 관계를 맺고 해상 무역 전개
- 알 아즈하르 대학 설립(카이로, 970년경)
- 아이유브 왕조에 멸망

07. 부와이 왕조(932 ~ 1055)

- 서부 이란, 바그다드 점령(945), 시아파 왕조
- 셀주크 튀르크에 멸망

08. 그라나다 왕국(1231 ~ 1492)

- 나스르 왕조의 무함마드 1세(재위 1232 ~ 1273) 창립
- 알함브라 궁전(1323)
-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Reconquista, 718 ~)으로 멸망



〈알함브라 궁전〉

개념 Check

- ① 무함마드는 메카의 보수적인 귀족층의 박해로 메디나로 이동하였는데, 이를 ()라고 한다.
- ②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는 새로운 지도자로 ()를 선출하여 정치·종교적 대권을 맡겼다.
- ③ 제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되고 () 왕조가 수립된 이후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다.
- ④ 우마이야 왕조 멸망 뒤 그 일파는 이베리아 반도의 ()를 수도로 하여 후우마이야 왕조를 세웠다.
- ⑤ 셀주크 튀르크는 1055년 바그다드에 입성한 뒤 ()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획득하였다.

유형 CHECK!!

01

(기)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가]의 야지드 1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에 즉위하자, 합의를 통해 칼리프를 선출해 온 관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리의 차남 후세인은 충성 서약을 거부하고 메카에 머물렀으며, 쿠파에 있는 알리의 추종자들은 서한을 보내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후세인이 자신의 측근과 함께 쿠파로 향하자, 야지드 1세는 군대를 파견하여 유프라테스강 근처 카르발라에서 후세인을 살해하였다.

- ①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
- ② 데브시르메 제도를 운영하였다.
- ③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 ④ 당과의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⑤ 이베리아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02

(기)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9월 모의평가]

알 만수르는 “내가 건설하는 이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번성하리라!” 라고 선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바그다드는 [가]의 수도로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를 잇는 교역 활동을 주도하면서 ‘세계의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곳에 위대한 페르시아 왕들의 도서관을 모델로 ‘지혜의 집’을 건설하였다. ‘지혜의 집’은 학문 연구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지역의 문헌이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수준 높은 학문이 발달하였다. 특히 이슬람 세계의 학문은 유럽으로 전파되어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 ①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였다.
- ②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 ③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 ④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 ⑤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하였다.

03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6월 모의평가]

투그릴 베그는 단다나칸 전투에서 가즈니 왕조의 군대를 격퇴하여 호라산 일대를 장악한 한편, 이란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파항을 점령하였다. 또한 그는 (가)의 알 카임 1세의 요청에 따라 바그다드에 입성하여 부와이 왕조를 축출하고 칼리프를 보호하였다. 이후 투그릴 베그는 알 카임 1세에게서 술탄의 칭호를 부여 받았고, 이슬람 세계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 ①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 ② 데브시르메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③ 몽골군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 ④ 이스마일 1세에 의해 수립되었다.
- ⑤ 이베리아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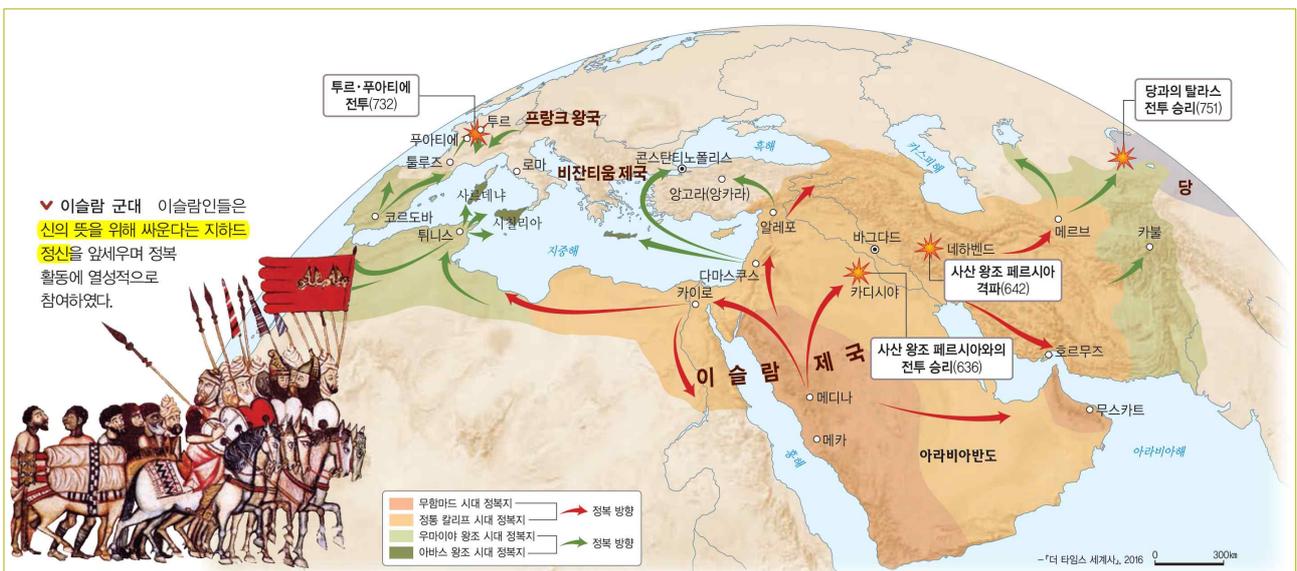
(가), (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 정통 칼리프 시대를 끝내고 등장한 새 왕조는 (가)을(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이 도시는 메디나보다 훨씬 손쉽게 지중해 동부 해안 지대로 진출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 시아파의 지원을 받은 가문이 비(非)아랍인을 차별하던 왕조를 타도한 후 새 왕조를 개창하고 (나)으로 천도하였다. 이 도시는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세계의 시장’으로 불렸다.

- ① (가) - 사파비 왕조의 수도였다.
- ② (가) - 파르티아에 의해 점령되었다.
- ③ (나) - 후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였다.
- ④ (나) - 셀주크 튀르크에 의해 점령되었다.
- ⑤ (가), (나) - 십자군에 의해 정복되었다.

■ 이슬람 세계의 확대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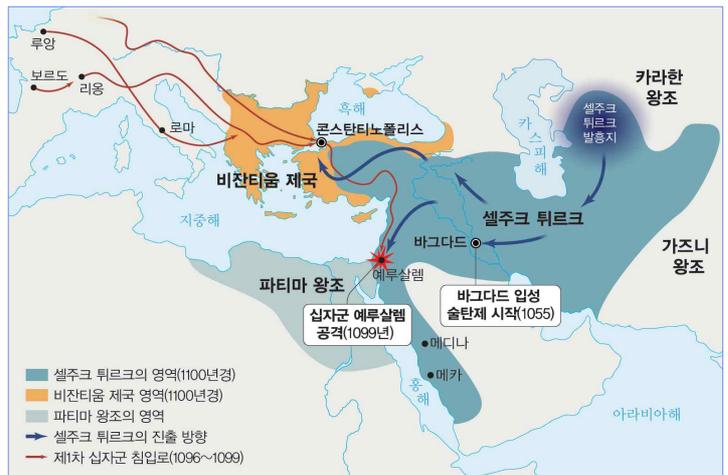
이슬람 세계의 변천



[★이슬람 세계의 팽창]

01. 셀주크 튀르크(수도 코니아, 1037 ~ 1194 ~ 1242)

-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이동, 맘루크(Mamluk)로 활약, 이슬람교로 개종
- 초대 술탄 **투(토)그릴 베그(Toghril Beg, 재위 1037 ~ 1063)**
: 단다나칸 전투(↔ 가즈니 왕조, 1040), 이스파한 점령(1049), **바그다드에 입성(1055)**
: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 카임 1세로부터 ‘동방과 서방의 왕’ 이자 **술탄의 칭호 획득(정치권 장악)**
- 파미르 고원 ~ 지중해에 이르는 영토 확보
- **예루살렘 점령(1071)**
- **소아시아의 아나톨리아로 세력 확대**
- 비잔티움 제국 압박
: **십자군 전쟁(1096 ~ 1270) 발발**
- 이크타 제도(분권적 군사 지배 체제) 실시
- 상업·학문 장려, 이슬람 문화 발달
- 십자군 전쟁과 내분으로 제국 분열
-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1242)**



〈셀주크 튀르크의 발전〉

02. 티무르 왕조(1370 ~ 1507)

- **수도 사마르칸트**
- 티무르(1336 ~ 1405)
: 트란숙사니아를 지배한 차가타이 울루스 계승 → **몽골 제국의 부활 표방**
: 투르키스탄과 러시아, 이란,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 침공
: **앙카라 전투(1402)에서 오스만 제국 격파**
- 명(明) 원정 도중 티무르 병사(1405)
: 후계자 자리를 두고 네 아들 간에 분쟁 발생
: 튀르크 계통 **우즈베크인에게 멸망**
- 동서 무역을 통해 번영, 튀르크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 융합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이슬람 세계의 팽창]

03. 오스만 제국(1299 ~ 1922)

1) 성립

- 오스만 족
- 아나톨리아에서 건국

2)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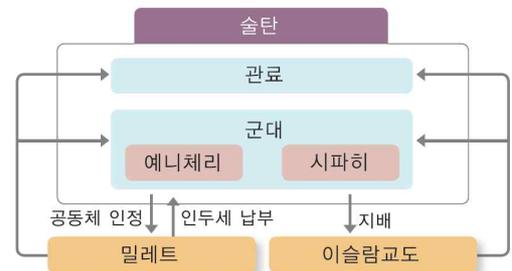
- 비잔티움의 크리스티교 연합군 격파
: 발칸 반도 장악, 술탄의 칭호 사용
- 앙카라 전투 패배(⇔ 티무르, 1402)
- 메(흐)메트 2세(7, 재위 1451 ~ 1481)
: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1453)
: 비잔티움 제국 멸망, 이스탄불로 개칭
: 유프라테스 강 상류, 흑해 연안까지 진출
- 셀림 1세(9, 재위 1512 ~ 1520)
: 찰디란 전투(⇔ 사파비 왕조의 이스마일 1세, 1514) 승리
: 이집트, 시리아의 맘루크 왕조 정복(1517) →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 장악
: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
: 아바스 왕조의 후손으로부터 칼리프의 칭호 계승
: 술탄·칼리프 제도 확립(정교일치, 1517)
- 솔레이만 1세(10, 전성기, 재위 1520 ~ 1566)
: 동유럽으로 진출하여 헝가리 정복, 빈 포위 공격과 실패(1529), 바그다드 점령(1533)
: 프레베자 전투 승리(⇔ 에스파냐와 로마 교황의 연합 함대, 1538)
↳ 동지중해의 제해권 장악(지중해 교역에서 주도적 역할) → 동·서 무역의 이익 독점
: 법전 편찬(선대 술탄들이 공포한 법령 정비, 입법자), 건축과 문학 및 회화 등 예술 분야 후원
- 셀림 2세(11, 재위 1566 ~ 1574)
: 레판토 해전 패배(⇔ 에스파냐 중심의 크리스티교 연합 함대, 1571)
: 지중해 제해권 상실



<오스만 제국의 발전>

3) 사회·군사

- 티마르 제도(일종의 군사적 봉건제) 실시(1438 ~)
: 군정관·기병에게 토지에 대한 징세권(티마르) 부여
- 밀레트 제도(1453 ~)
: 인두세 납부 조건으로 이교도의 종교 공동체 인정
- 데브시르메 제도(→ 크리스티교도 소년 징집)
- 예니체리(Yenicheri, Janissary, 1330 ~ 1826) 육성
: 새로운 군대(튀르크 어), 술탄의 친위 부대



<오스만 제국의 통치 체제>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이슬람 세계의 팽창]

03. 오스만 제국(1299 ~ 1922)

4) 문화

- 이슬람 문화를 바탕으로 튀르크, 페르시아,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융합
- 건축
 - : 톱카프 궁전(1467)
 - : 슬레이마니예 사원(슬레이만 1세, 1557)
 - : 술탄 아흐메드 사원(블루 모스크) 건축
- 천문학, 수학, 지리학 등 실용적인 학문 발달
-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세밀화 유행
- 이란의 전통 위에 궁정 문학 및 튀르크 민중 문학 발전



〈슬레이마니예 사원〉



〈술탄 아흐메드 사원〉

04. 사파비 왕조(1501 ~ 1736)

1) 성립과 발전

- 이스마일 1세(①, 재위 1501 ~ 1524)
 - : 수도 타브리즈
 - :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
 - :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함
 - : 페르시아의 군주 칭호인 ‘샤’ 사용
 - :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계승 표방
- 아바스 1세(⑤, 재위 1588 ~ 1629)
 - : 이스파한 천도(1597)
 - : 군사력 강화, 비단 산업 국유화
 - : 그리스도교 선교사의 체류 허용
 - : 유럽 주요 도시에 상인 파견
 - : 도로, 다리, 상인들의 숙소를 건설하는 등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
 - : 이맘 모스크(왕의 모스크) 건설



〈티무르 왕조와 사파비 왕조의 발전〉

2) 쇠퇴와 멸망

- 수니파 국가인 오스만 제국과 대립
- 왕실 내부의 갈등과 혼란으로 쇠퇴
-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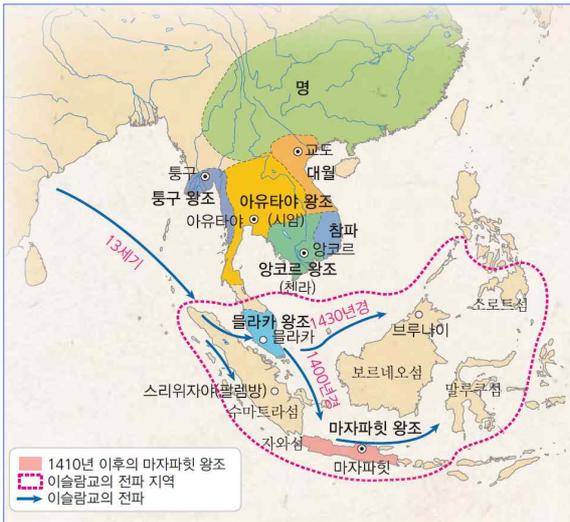


〈이맘 모스크(이란)〉



▣ 이슬람 세력의 동남아시아 진출(『천재교과서』)

믈라카 해협은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의 해상 교역로였다. 14세기에 성립한 믈라카 왕조는 이러한 지리적 조건 덕분에 동서 교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믈라카 왕조는 정화의 항해(1405 ~ 1433)**를 계기로 명과 조공 무역을 시작했으나 명이 대외 교역을 제한하자 이슬람교로 개종하여 이슬람 세계와의 교역을 확대했고,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등을 중계 무역하면서 1511년까지 번영하였다.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년)
인도 차이나 반도	미얀마	파간	분열기	통구	곤바웅			
	캄보디아	앙코르		베트남, 라오스, 태국의 간섭과 지배				
	베트남	북부	찐	명의 지배	레	응우옌		
		남부	참파					
	태국	수코타이	아유타야		짜끄리			
라오스	란창							
도서 지역	말레이시아	믈라카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				
	인도네시아	마자파힛		마타람		네덜란드의 지배		

○ ‘백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으로, 코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도 힌두 문화의 영향을 보여 준다.

▣ 이슬람 세력의 아프리카 진출



▣ 맘루크 왕조(1250 ~ 1517)

- 맘루크(노예 용병)의 지배
- 이집트, 시리아 일대 통치
- 몽골의 침입 격퇴 : 메카·메디나 보호
- 지중해, 인도양 무역 : 중계 무역으로 번영
- **오스만 튀르크의 셀림 1세에게 멸망**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이슬람 세계의 사회와 경제]

01.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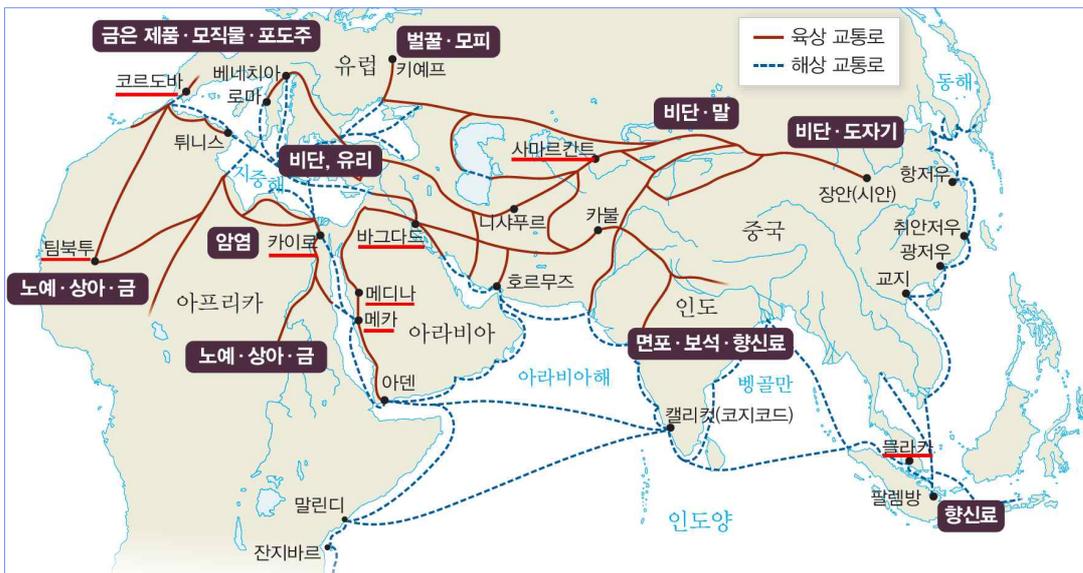
- 종교 중심 사회
 - :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을 지배
 - : 앗살람 알라이쿰(알라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 신 앞의 평등
 - : 무슬림(Muslim)
 - : 신분 차별은 없었으나 처음에는 아랍인 우대
- 순교자 찬미, 불경한 자는 징계 → 전투력 증강의 배경
- 일부다처 허용, 돼지고기를 금기하는 식생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자선 활동
- 지즈야(Jizyah)를 거두는 대신 피지배 민족의 종교 인정

02. 경제

- 자유로운 상업 활동 보장
 - : 상업 행위를 긍정적으로 인식
 - : 국가 주도로 도로망 정비, 정부 주도의 시장(바자르) 운영
 - : 교역로를 중심으로 팀북투, 메카, 메디나, 바그다드, 코르도바 등 상업 도시 발달
- 대상 무역
 - : 낙타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내륙과 중국까지 왕래
- 해상 무역
 - : 다우선 이용
 - : 동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바닷길 교역 주도
 - :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인도의 향료와 면직물, 동남아시아의 향료 등을 중계



(다우선)



- 신용장 · 어음 · 수표 등 제작, 군대를 고용하여 안전 확보, 수공업자 동업 조합 결성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발전

[이슬람 세계의 문화]

01. 특징

- 동·서 문화를 융합한 다채로운 문화 발전
: 그리스, 인도, 이란, 중국 등 각지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이슬람교의 체계 속에 재편성
: 동서 문화 교류에 이바지
- 이슬람 문화권 형성
: 이슬람교, 『쿠란』, 아랍어 등 이슬람 문화권의 공통 요소
: 알라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 때문에 『쿠란』 번역의 원칙적 금지
- 유럽의 근대 문화 발달에 기여
: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의 자연 과학을 발전시켜 유럽에 전달
: 중국의 제지술, 나침반, 화약, 인쇄술 등을 유럽에 전달하여 르네상스 자극

02. 자연 과학과 의학 발달

- 자비르 이븐 하이안(721 ~ 815)
: 근대 화학의 아버지, 여과·증류·승화 등의 실험 방법 확립
- 알 콰리즈미(780 ~ 850)
: 대수학의 아버지
: 인도의 수 개념과 10진법 대중화
: 알고리즘(Algorism)의 유래
- 이븐 시나(980 ~ 1037)
: 『의학정전(의학전범)』 저술



〈제왕 절개 수술 중인 이븐 시나〉

- 알 이드리시(1099 ~ 1166)
: 세계 지도 제작(1154)
: 직사각형에 본문이 첨가된 70개의 지역 세분도로 구성
- 알 투시(1201 ~ 1274)
: 생물학적 진화론 설명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

03. 학문

- 『쿠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신학과 법학 발달
-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아랍어로 번역
: 유럽 중세 스콜라 철학의 성립에 영향
- 『역사서설』(이븐 할둔), 『여행기』(이븐 바투타), 『아라비안나이트』(여러 지역의 설화 재구성)

04. 예술

- 모스크(꽃어 잎드려 경배하는 곳) 건축
: 비잔틴 양식 + 사산조 페르시아 건축 양식 + 돔(둥근 지붕)·첨탑(미나레트, minaret)
- 우상 숭배 금지로 그림과 조각 등 조형 미술 쇠퇴 → 아라베스크 문양 발달

개념 Check

- ① ()는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성지 순례를 방해하여 십자군 전쟁을 유발하였다.
- ② 티무르 왕조는 ()를 수도로 하여 동서 무역을 통해 번영하였다.
- ③ () 왕조는 페르시아의 전통적인 군주 칭호인 ‘샤’를 사용하였다.
- ④ 오스만 제국은 () 전투에서 티무르의 군대에 패하여 타격을 받았지만 곧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⑤ 1453년 ()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키면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 ⑥ 오스만 제국은 데브시르메 제도를 통해 술탄의 친위 부대인 ()를 육성하였다.
- ⑦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슬람교 경전인 『____』의 가르침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다.
- ⑧ 이슬람 건축에서는 돔과 미나레트를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가 주축을 이루었고, () 무늬가 사용되었다.

유형 CHECK!!

01

(가) 술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6월 모의평가]



[가]은(는) 선대 술탄들이 공포한 법령들을 정비하고 법전을 편찬하여 ‘입법자’로 불리었다. 또한 건축과 문학, 회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후원하여 문화를 발전시켰다. [가]은(는) 영토 확장에도 힘써 동쪽으로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서쪽으로는 헝가리 정복에 이어 빈을 공격하는 등 세 대륙에 걸쳐 술탄의 위세를 떨쳤다.

- ① 크림 전쟁에서 승리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였다.
- ②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였다.
- ③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탄지마트(은혜개혁)를 추진하였다.
- ④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여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 ⑤ 유럽 연합 함대를 무찔러 동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02

다음 자료의 술탄이 통치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21-9월 모의평가]

일찍이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가 새 수도를 정하고, 이를 ‘새로운 로마’로 칭하였습니다. 이제 젊고 패기 넘치는 술탄이 난공불락의 그 도시를 함락함으로써 자신이 황제의 권좌에 오를 만한 강력한 지배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위대한 술탄은 우리 크리스트교도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어 자신이 자애로운 통치자라는 사실을 과시하였습니다.

- 게오르기오스 트라페준티오스

- ① 바부르에 의해 건국되었다.
- ② 예니체리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③ 베르딩 조약으로 분열하였다.
- ④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⑤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 멸망되었다.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오스만 제국(1299 ~ 1922)의 쇠퇴와 근대화 운동]

01. 19세기 오스만의 쇠퇴

- 유럽 영토의 대부분 상실
- : 그리스 독립과 이집트의 자치 허용(1829)
- : 세르비아 등 속주의 반란
- 영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압박



02. 탄지마트(= 은혜개혁, 1839 ~ 1876)

〈오스만 제국의 쇠퇴〉

- 술탄 압둘 메지트 1세(㉑), 재위 1839 ~ 1861), 장미의 방 칙령(1839)

- 술탄의 권한 일부를 의회에 넘기고, 의회는 술탄의 승인을 얻어 법률을 제정한다.
- 백성의 생명, 명예, 재산에 대한 충분한 안전을 보장한다.
- 조세 징수에 관한 원칙을 마련한다.
- 군대의 징집에 대한 정식 규정 및 근무 기간을 설정한다.



〈돌마바흐체 궁전(1856)〉

- 근대적 군대 양성, 행정 개편, 신교육제 도입
- : 지방 세력과 구식 군인의 반발로 성과 미흡

03. 미드하트 헌법 공포(= 오스만 제국 헌법, 1876)

- 미드하트 파샤(1822 ~ 1883) 주도

- 제8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 제9조 이슬람교도와 비(非)이슬람교도는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 제28조 내각 회의는 대재상의 주재로 소집되며, 내각의 권한은 국내의 모든 중요 사건에 이른다.
- 제42조 제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 제60조 상원 의원은 술탄이 임명한다.



〈미드하트 파샤〉

- 술탄 압둘 하미드 2세(㉒), 재위 1876 ~ 1909
- : 러시아·튀르크 전쟁(제6차, 1877 ~ 1878)으로 정치 개혁 중단
- : 헌법 정지, 의회 해산, 범(凡)이슬람주의 표방, 자유주의 탄압과 전제 정치 강화

04. 청년 튀르크 당 결성(1889)

- 젊은 지식인, 장교 등 주도

05. 청년 튀르크 당의 입헌 혁명(제2차 입헌 운동, 1908)

배경	• 술탄 압둘하미드 2세의 전제 정치 강화
전개	• 지식인, 관료, 장교들이 <u>무장 봉기를 통해 정권 장악</u>
	• <u>헌법 부활, 입헌 정치 실시</u> , 근대적 산업 육성, 언론의 자유 보장 등 근대화 정책 실시
한계	• <u>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u> 를 내세워 제국 내 다른 민족의 반발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아라비아 세계의 각성]

01. 배경

- 오스만 제국, 이란 카자르 왕조(1794 ~ 1925)의 지배
- 오스만 제국의 쇠퇴 이후 서양 열강의 진출
: 종교, 부족 대립을 이용하면서 영향력 확대



〈와하브 운동의 세력권〉

〈와하브 운동 깃발〉

02. 와하비(와하브) 운동

-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1703 ~ 1792) 주도
- **이슬람 순화 운동**(『쿠란』으로 돌아가라!)

아라비아의 무함마드 이븐 압둘 와하브는 이슬람 세계에 스며든 신사조를 배척하고, 초기 이슬람교(무함마드 이후 300년)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며 이슬람 순화 운동을 일으켰다. 아랍 인들은 금욕적인 이슬람 교리를 실천함으로써 세속적인 제국주의와 자신들을 구별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아랍 세계를 다시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復古적 경향은 현대에 이르러 아랍 세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성장
- 제1차 사우디 왕국(1774 ~ 1818) 건설 ⇨ 이집트 무함마드에 정복 ⇨ 사우디 왕국으로 부활(1932)

[★이란(카자르 왕조, 1779 ~ 1925)의 민족 운동]

01. 배경

-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려는 영국의 경쟁에 휩쓸려 많은 영토와 이권 상실**
- 투르크만차이 조약 체결(카자르 왕조 ~ 러시아, 1828)
- 영·이란 통상 조약(1841)
- **나세르 알 딘 샤**(재위 1848 ~ 1896)
: **영국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담배 전매 독점권 부여(1890)**

02. 개혁 운동

- **아프가니(1838 ~ 1896)의 담배 독점권 반환 주장**
: 상인, 이슬람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담배 이권 수호 운동(담배 불매 운동, 1891)** 전개
: 왕과 외세를 반대하는 저항 운동으로 발전하여 영국의 담배 독점권 회수 → 막대한 배상금 지불
- 입헌 혁명(1905 ~ 1908)
: 국민 의회 수립, **입헌 군주제 헌법 제정(1906)**

03. 한계

- 러시아의 후원을 받은 전제 세력이 의회를 포격하고 입헌 운동 무력 탄압(1908. 6월)
- **영국과 러시아의 분할 협정(1912)** → 반(半)식민지 상태로 전락

제국주의와 민족 운동

[이집트의 개혁(『금성·비상 교과서』)]

01. 배경

- 맘루크들의 권력 다툼
-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한 봉기로 총독 쿠르시드 파샤 무력화

02. 무함마드 알리(1769 ~ 1849)

- 민중 봉기를 통해 총독으로 추대(1805)
- 오스만 튀르크의 총독 승인 → 맘루크들을 완전 제압하여 권력 강화
- 근대화 정책 추진

개혁	• 근대적 육군·해군 창설, 산업 장려, 조세와 토지 제도 개혁, 교육과 행정 개편
외교	• 와하브 왕국 정복(1818)
	• <u>그리스 독립 전쟁(1821 ~ 1829) 때 오스만 제국 지원</u> ⇨ <u>자치 획득(1829)</u>

03. 수에즈 운하 건설(1869)

-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인공 수로(길이 168km)

□ (가) _____, (나) _____, (다) _____

- 1859년 **(가)**의 레셉스가 이집트의 사이드 파샤(재위 1854 ~ 1863)로부터 개설 특허를 받아 시작된 운하 건설은 1869년에 완성되었다. 수에즈 운하의 건설로 유럽의 인도 항로가 1만km 이상 단축되어 유럽과 인도 및 중국에 이르는 무역의 규모가 크게 증가되었다.
- 영국 정부는 원래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운하 건설을 주도한 다른 유럽 국가가 이집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나)**(으)로부터의 이집트 독립을 지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독립한다면, **(나)**의 세력이 약화되는 만큼 인접한 **(다)**의 힘은 강화될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다)**은(는) 그리스 독립 전쟁을 지원한 이래 팽창의 야망을 드러냈고, 이에 맞서 영국은 전쟁까지 불사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조선업자와 면 제조업자 등 기업가들은 정부와는 달리 경제적 이유로 운하 건설에 찬성하였다.



- 영국, 프랑스로부터 차관 도입 → 경제적 종속 심화

04. 아라비 파샤(1841 ~ 1911)의 민족 운동

- 영국의 수에즈 운하의 주식 매입 → 운하 경영권 차지(1875), 내정 간섭 강화
-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 건설을 주장하며 혁명 전개(1881) → 영국의 간섭으로 실패

05. 영국의 내정 간섭

-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1882)
- 독립(1922),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조치(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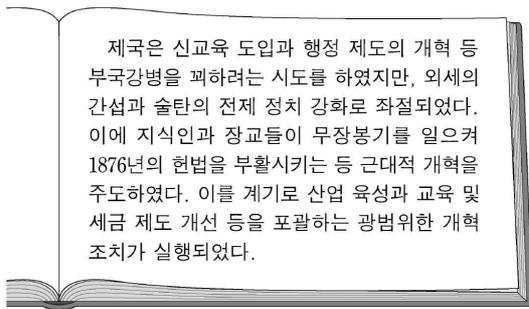
개념 Check

- ① 오스만 제국에서는 열강의 압박 속에서 탄지마트 개혁을 추진하였고, ()의 주도로 헌법을 제정하고 입헌 정치를 추구하였다.
- ② 1908년 ()이 입헌 혁명을 일으켰으나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워 피지배 민족의 반발을 받았다.
- ③ 유럽 열강이 아랍 세계를 침략하자 ‘쿠란으로 돌아가라!’라는 구호 아래 이슬람교 순화 운동인 ()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아프가니는 ()에서 담배 독점권 반환 촉구 운동을 호소하였다.
- ⑤ 1869년 ()의 지원으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 운하가 완성되었다.

유형 CHECK!!

01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2-9월 모의평가]



- ① 롤러법 폐지 운동의 목적을 파악한다.
- ② 애로호 사건이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 ③ 청년 튀르크당의 집권 과정을 조사한다.
- ④ 군관구제와 둔전병제가 실시된 계기를 찾아본다.
- ⑤ 헤레로족의 무장봉기가 일어난 배경을 살펴본다.

02

(가) 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맘루크들의 권력 다툼 속에 (가)이(가) 파견한 총독의 약탈이 혼란한 상황을 가중시켰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봉기하여 맘루크들을 쫓아내고, 총독 쿠르시드 파샤를 무력화시킨 후 군사령관 무함마드 알리를 새로운 총독으로 추대하였다. 당시 세르비아 등 여러 민족의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은(는) 무함마드 알리를 총독으로 승인하였고, 그는 맘루크들을 완전히 제압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 ① 크림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 ②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
- ③ 세포이 항쟁을 진압하였다.
- ④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하였다.
- ⑤ 데칸고원 일대를 장악하였다.

유형 CHECK!!

03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1-수능]



그림은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감해 하는 (가)의 나세르 알 딘 샤를 풍자한 것이다.

(가)은(는) 한편으로 카스피해 동쪽 방면에서 남하하던 러시아와, 다른 한편으로 아프가니스탄 지역 등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 사이에서 이중의 압박을 받으며 영토를 빼앗기거나 각종 독점권을 넘겨주었다. 이에 샤는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외세의 간섭과 보수 세력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 ① 탄지마트가 단행되었다.
- ② 반동 회의가 개최되었다.
- ③ 아도와 전투가 발발하였다.
- ④ 담배 불매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⑤ 톨렛법 폐지 운동이 벌어졌다.

▣ 와하브 운동의 활동 영역과 열강의 이란 침략





시대	시대 특징	
	정치·경제	사회·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적 지형 구조 • 이민족의 침입 빈번, 여러 왕조 흥망 : 수메르 → 아카드 → 아무르 → 히타이트 • 신정 정치, 지구라트 • 히타이트(철기), 페니키아(카르타고) • 헤브라이인(유대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세적 다신교 • 점토판을 이용한 썩기문자(설형문자) • 함무라비 법전(보복주의, 계급주의) • 농업·상공업 발달, 인더스 지역과 교역 • 60진법, 태음력, 점성술 유행, 천문학 발달 • 길가메시(우르크 왕) 서사시
고대 서아시아 세계	① 아시리아 (최초 통일, 니네베, 강압적 통치) ②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BC. 559 ~) • 키루스 2세 : 리디아 정복 등 서아시아 재통일 , 관용 통치 • 다리우스 1세 (재위 BC. 522 ~ BC. 486) : 역참제, 총독·감찰관 파견, 운하 건설 : 그리스·페르시아 전쟁(BC. 492 ~) •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멸망 (BC. 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네베 왕립 도서관, 썩기 문자, 지구라트 • 왕의 길 : 수사(수도) ~ 사르디스(리디아의 수도) • 페르세폴리스 건설(BC. 518 ~) : 다리우스 1세 • 그리스, 이집트 등의 다양한 문화 반영 •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와 신봉 : 일신교(아후라 마즈다), 최후의 심판, 성화단
	③ 사산왕조 페르시아(226 ~ 651) • 크테시폰, 쿠산 왕조 침략, 굽타 왕조와 절경 • 동서 중계 무역으로 번성 • 비잔티움과 전쟁, 이슬람 세력에 멸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르시아, 인도, 그리스 문화 융합 • 미술, 공예(금속·유리) 분야 발달 • 조로아스터교(국교), 경전 『아베스타』 편찬 • 마니교 등장과 탄압
	① 무함마드 시대 (610 ~ 632) : 헤지라(622) ② 정통 칼리프 시대 (632 ~ 661) : 이집트 정복 ③ 우마이야 왕조 (661 ~ 750) : 다마스쿠스 ④ 아바스 왕조 (750 ~ 1258) : 바그다드 ⑤ 후우마이야 왕조(756 ~ 1031) : 코르도바 ⑥ 셀주크 튀르크 (1037 ~ 1242) : 바그다드 입성(1055), 비잔티움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라 숭배, 우상숭배 배격, 만민평등 • 카르발라의 참극(수니파와 시아파, 680) • 『쿠란』이 일상생활 지배, 종교적 관용(지즈야) • 상업 보호, 화폐 유통, 상업과 도시 발달 • 자연과학 발달(의학, 수학, 화학 등) • 아리스토텔레스 연구 → 스킴라 철학의 토대 • 모스크, 돔·첨탑, 아라베스크 문양
서아시아 전통사회의 발전	① 티무르 왕조 (1370 ~ 1500) • 사마르칸트, 몽골 제국의 부활 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 문화의 교량적 역할 • 이슬람 + 페르시아 + 튀르크 문화
	② 오스만 제국 (1299 ~ 1922) • 메흐메트 2세, 콘스탄티노폴리스 정복(1453) : 비잔티움 제국 멸망, 이스탄불로 개칭 • 셀림 1세, 맘루크 왕조 정복 (1517) • 술탄이만 1세, 헝가리 정복·프레베자 전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교일치의 술탄·칼리프 제도 확립(1517) • 티마르 제도, 밀레트 제도 실시 • 데브시르메 제도와 예니체리, 시파히 제도 • 1571년 레판토 해전 패배로 지중해 교역 상실 • 이슬람 문화의 황금기, 블루 모스크
근대화 운동	① 오스만 제국 • 탄지마트 (은혜개혁, 1839 ~ 1876) → 미드하트 헌법 (1876) → 러·튀 전쟁 패배(1877 ~ 1878) • 청년 튀르크당의 입헌 혁명(헌법 부활, 입헌 정치 실시, 근대 시설 확장 등, 1908) ② 와하브 운동(아라비아, 이슬람 순화 운동) → 사우디 왕국 건설(1774 ~ 1818) ③ 이란, 담배 독점권 반환 운동 (↔ 영국), 입헌 운동과 헌법 제정(1906), 영·러의 분할(1912) ④ 이집트 , 무함마드 알리·아라비 파샤, 수에즈 운하(프랑스 주도, 1869) , 독립(from 영, 1922)	
현대	① 팔레스타인 문제[맥마흔 선언(1915), 사이코스·피코 협정(1916), 벨푸어 선언(1917)] ② 터키 공화국 수립(무스타파 케말, 1923) ③ 팔레비 왕조(이란, 1925 ~ 1979), 이라크 왕국(1932 ~ 1958), 이스라엘(1948)	